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NEWS LETTER

March of 2023 Vol.52

소식지

의과대학

발행인 김승후 편집인 도경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TEL 02-3010-4207~19 Fax 02-3010-4240 Homepage <https://medulsan.ac.kr> 소식지 홈페이지 <https://medulsan.ac.kr/eletter>



02 [Interview] 정웅기 울산대학교병원장 04 [기획기사] 학생지도부터 심리연구까지 '학생파트' 09 [교과탐방] 의사라면 알아둬야 할 기본적 지식 '혈액증양' 11 [학생기자
가 간다] 중증 난치성 질환 전문병원 역할이 주요 목표 14 [건강칼럼] 건강봄철 알레르기 비염의 관리요령 15 [의대소식] 우리 의대 입학·졸업식 개최...교양있는 의사,
도전하는 의사' 강조 17 [의대소식] 우리 의대 교수 17명 인생 2막 시작...정년식 개최 18 [의대소식] "발전기금 쾌척 감사합니다. 글로벌 의대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대표병원에서 국내 최고 수준 대학병원 도약 추진

의대 교육 환경 강화, 500병상 규모 새 병원 건립 등

정웅기 울산대학교병원장이 4번째로 연임하여 제11~14대(2017~2024년) 8년 연속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11대 병원장 취임 후 대표적인 성과로는 ▲2017년 울산대학교 부속병원 전환으로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화되며 진정한 대학병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2021년 부산 울산 경남 권역 1위로 상급종합병원에 재진입했다는 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에 정웅기 병원장을 통하여 울산대학교병원의 현재 위치와 향후 발전 방향, 의대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웅기 울산대학교병원장

Q. 울산대학교병원의 현재 위치에 대한 평가

울산대학교병원은 979병상 규모로 의사 약 400명을 포함하여 약 3,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의료수익 5,296억원으로 영남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을 대표하는 병원이다.

또한 암수술, 로봇수술, 장기 및 골수이식,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치료 및 중증환자 진료에 특화되어 있고, 뇌출증,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골든타임이 있는 응급환자 진료에 최적화된 수준 높은 병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서 ‘수련받기 좋은 병원’ 1위로 선정될 만큼 전공의가 선호하는 수련병원이기도 하다.

Q.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의대 교육을 위해 변화 및 준비 중인 내용은?

의과대학이 주도하는 울산의대 교육과정개편과 교육장 이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전하는 교육장을 병원 인근에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교수님들의 관심도 높은 상태이다.

서울에 있을 때와 다름없는 양질의 교육 및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울산의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돋겠다.

이를 위해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함께 하는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핵심적인 사항이라 생각한다.

Q. 울산의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

울산의대 교육장 이전으로 울산에서 이뤄지는 교육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은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해진 교육환경은 본인이 다방면에 소양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노력하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부속병원도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의대생들이 진로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본인의 적성과 성향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사가 20대 중반에 의사면허를 획득한다고 보면, 대략 50년 동안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요즘 자주 거론되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메이저 진료과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0년 전에는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명예도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누구나 선망하는 진료과였다. 인구변화, 질병 유병률 변화,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전, 의료제도 변화, 의료인과 일반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등 수많은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잘 찾아 입는 것이 중요하다.

Q. 의대 교육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현대 의료는 여러 직종과 여러 분야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진료행위의 성패는 의사 환자간 신뢰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대 교육에서 의학적 역량 뿐만 아니라 소통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대 의학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며 계속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을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의대 교수, 학부모,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의과대학의 교육장 이전을 앞두고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대교수님을 비롯해 울산의대 재학생, 그리고 예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영남권 최고병원으로 최상급의 진료실적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여기에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우리 의대 학생들이 미래 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Q. 울산대학교병원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울산대학교병원은 향후 5년 동안 현 병원과 이전하는 교육장 사이에 500병상 규모의 새 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새 병원 건립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여 영남권 최고병원을 넘어 서울 대형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으로 도약하려고 한다. 또한 연구 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를 통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을 확립하고, 울산의대 학생 교육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Q. 기타 전하고 싶은 말

대학병원 전환 25년 부속병원 전환 6년, 울산대학교병원은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영남권 최고병원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는 울산대학교 소속으로 울산의대 가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설립자 아산의 첫번째 병원으로서 설립이념에 충실히 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한편 정 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병원 연수를 마쳤다. 간담도와 췌장 등 복부 영상의학 분야 권위자이다.



학생지도부터 심리연구까지 ‘학생파트’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해외 연수 선택 등

우리 의대는 김승후 학장을 중심으로 부학장들이 학장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대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총 4개(교무, 교육, 학생, 연구)파트 중 이번호에는 학생파트의 주요 업무 소개와 활동, 올해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학생파트 조직 및 주요 업무

학생파트는 입시전형부터 학생지도, 연수 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생활과정을 밀접하게 책임지고 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학생지도/학생국내외연수/진학/취업, ▲학생상별/장학금/학생복지, ▲학생지도/학생국내외연수/진학/취업, ▲학생상별/장학금/학생복지, ▲입시전형운영/입시홍보/입학정보 수집, ▲입학 전형 분석 및 평가, ▲학생심리상담/코칭 ▲학생지도/학생국내외연수/진학/취업, ▲학생상별/장학금/학생복지, ▲입시전형운영/입시홍보/입학정보 수집, ▲입학 전형 분석 및 평가, ▲학생심리상담/ 코칭 등이 있다.

주요 보직자로는 학생부학장 최세훈, 의학과장 김민재 교수가 있다.

2023년 주요 변화 내용

▲포트폴리오 지도교수 체계 내실화

우선 LCME(Less Competitive More Excellent curriculum) 과정과 밸맞춰 포트폴리오 지도교수 체계를 내실회한다.

LCME는 우리 의대 교수들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교육 과정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학점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였다. 만약 학생에게 윤리적인 면이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도 학점만 괜찮다면 울산의대가 졸업을 인정한 의사로 배출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는 동료들이 단지 경쟁자였을 뿐, 평생의 중요한 동료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

반면, 바뀐 LCME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자기개발, 전문직 업성, 연구, 진료 등이 모두 중요하다.

이 가치들은 우리 의대가 졸업성과로 제시한 5개 역량이다. 이들은 이 사회에 훌륭한 의사로서 기여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이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각 학년별 5명의 포트폴리오 지도교수를 모셨다.

한 교수 당 8~9명의 학생을 맡아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관찰

하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발전할지 조언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확인하며 피드백을 한다.

▲학생들의 심리 상담/코칭 강화

다음으로 학생들의 심리 상담/코칭을 개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2년 9월부터 이종환(의학교육학교실) 교수를 학생상담실에 초빙하였다. 학생상담실에서는 학생 심리 상담/코칭, 심리 평가 및 학생 관리, 학습/진로/역량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학생을 상담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예2, 본2, 본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심리 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심리 경향을 분석하고, 입학 전형에 따른 학생들 간의 차이 등도 추적관찰 및 평가하기로 하였다.

의대 학업의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위기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부학장을 비롯한 학생팀 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교육파트와 연계하거나 병원 교수들과도 연계하여 학생들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돋는다.

또한 추적관찰하며 격려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해외 연수…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연수기관 선택 · 사용 가능

마지막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존의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NGO, 제약회사, WHO, 연구소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예전의 해외연수는 예과 2학년 때 어학연수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의학과의 연관성은 조금 부족하였고, 의대 교육 목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간 해외연수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연수는 예과 2학년에서 본과 3학년(2023년도 본과 3학년) 과정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본과 3학년은 의학과 병원, 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나는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렴풋한 이미지를 가지는 시기이다. 자신의 관심 분야,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 연구실, 국가기관이나 병원 등 전 세계 어디라도 자유롭게 연수기관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자신의 미래를 탐구

하는 기회로 해외연수 기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참고) 최세훈 학생부학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 의대 교수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직접 자신의 관심분야를 정하고 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간단한 심사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연수를 가게 될 것이고, 그 연수 과정은 학생의 평생에 큰 자극이 되고 영감을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학생파트 조직 및 주요 업무

업무	세부업무	담당보직자	담당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학생국내외연수/진학/취업 • 학생상벌/장학금/학생복지 • 입시전형운영/입시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적관리(등록, 휴복학 등) • 학생지도 및 학생관련 행사 • 학생 국내외 연수 및 봉사 지원 • 장학금 관리, 간호학과 일류화사업 장학금 관리 지원 • 학생상벌 및 후생복지 • 진학 및 취업지도 • 학생지도 위원회 운영 • 학생 포트폴리오 (졸업성과) 프로그램 운영 • 타 의과대학 학생 임상연수 관리 • 학생 상담 운영지원 • 입시 전형 운영 (입학사정관 포함) • 입시 홍보 • 인증 학생부문 진행관리 	신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 분석 및 평가 • 입시전형, 입시홍보, 입학상담 • 입학정보수집, 입학관리위원회/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전형 계획 • 입시전형 운영 • 입학위원회 운영 •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 교수사정관 관리 및 교육 • 입시홍보, 입학상담 • 입학관련 워크숍 계획 및 운영 • 입학정보 수집 및 분석 • 입학전형 분석 및 평가 • 입학생 분석 및 평가 •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 운영 지원 	학생부학장 학생의학과장	조아연

학생파트 주요 성과 및 추진방향

연번	추진방향		주요 성과
1	학생지도 내실화	• 개인지도교수 역할 강화	• 포트폴리오 담당교수 모임 및 워크숍 진행으로 지도교수 사이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 학생 만족도를 높임
		• 그룹지도 활성화	• MS TEAMS®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지도체계 안정화 • 멘토/멘티 프로그램 관련 OT 및 wrap-up 모임을 진행하여 학습그룹을 좀 더 체계화 • 동아리 활동 재개 및 시설 대관 및 지도비 적극 지원
		• 학생상담실 활성화	• 상담실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심리 지원 활성화 • 외부병원과의 연계도 진행하여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 가능하게 함

	학생지도 내실화	• 진로지도 강화	• 선배와의 만남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함 • 진로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직자로부터 듣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해외교류의 다변화	• 해외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 기준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NGO, 제약회사, WHO,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OT를 진행함 • 홍콩중문의대와 MOU 진행 • 해외 의대생 교환 프로그램(SCORE)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줌
3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 교수의 입시관련 전문성 강화 • 입학담당 조직의 확대 및 역량 강화	• 입학세미나 운영을 통해 학생선발에 관심 있는 교수를 모집하여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평가자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풀을 확대함 • 문항개발소위원회와 면접평가소위원회에 각각 위원장을 임명함. • 각 소위원회별로 교육도 받고, 전문성도 강화하여 운영.
4	입시홍보 강화	• 고교 방문 및 대입상담프로그램 참여 • 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 진학교사 초청 • 1:1 입시 면담 실시	• 부산/울산 지역 개별교방문 입학설명회 및 교사간담회 진행 • 부산/울산/경남 의대연합설명회 및 1:1 상담 프로그램 참여 • 서울/부산 대입상담프로그램 참여하여 의대 진학관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홍보 진행 • 전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등학생 수준의 의과대학 강의를 소개하고 재학생들의 고교생활 및 대학생생활에 대해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교내 입시워크숍 및 세미나에 고교 교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 • 유선/ 입학상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Q&A를 진행함



[미니인터뷰] 최세훈 학생부학장, 김민재 의학과장

Q. 대표적인 사안 의사 결정 과정은?

학생파트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최세훈, 김민재, 이종환 교수와 신은지, 조아연 직원들이 매주 만나 현안과 논의할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한다.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선의 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1~2달에 한 차례 학생파트 회식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파트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의외로 종종, 복잡한 문제가 일목요연해지고 상황이 이해되며 좋은 접근 방법을 찾게 되곤 한다.

Q. 학생부학장 및 과장의 활동 중 애로 사항이나 기억에 남는 일화

▲최세훈 학생부학장

학생부학장이 되면서 위기 학생, 특히 유급 등 성적 관련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 여려명을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꺽인’ 학생을 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우리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자타공인 대단한 학생들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유급을 거듭하고 뛰어난 동료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믿지 못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고양이 앞에 있는 생쥐가 얼어붙어 자신의 재빠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압도적인 학업량 앞에 얼어붙어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활용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런 학생을 2~3명 만나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해도 그 학생들을 자기불신의 구렁텅이에서 꺼낼 수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암울함이 내게도 옮겨와 나도 우울감을 느낄 정도였다.

학교가, 교수가, 부모님들이, 동료가, 그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넌 할 수 있어.”, “누구도 의대 공부를 다 소화할 수는 없어.”,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의대 공부는 다들 힘들어 해.”, “지금은 힘들어도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때 너가 만날 너의 학생들에게 해줄 말이 있을 거잖아? 그 말을 지금 너 스스로에게 해봐.” 같은 말을 하는 지지집단이 되어야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각 학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아래 학생파트에서 교수, 학부모, 학생에게 따로 당부의 말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기 학생 주변 사람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김민재 의학과장

△ 기억에 남는 일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체험강의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강의를 준비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었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조심스럽게 정해야 했다.

강의장에서도 단상에서 올라서서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들과 같은 방향에서 자료들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었고 질의응답시간에도 매우 활발히 질문을 해 주어서 참여하였던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던 점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만, 반면에 의사 생활이 가질 수 있는 고단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혹시 다음 해에 다시 전공체험강의를 준비하여야 하면 좀 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 어려운 점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고민인 것 같다. 학교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다려 줘야할 것인지 결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의대에서 예과 시기에 하버드나 버클리의 여름학기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3년 간 중단 되었다.

그러다 2022년 새롭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본과에서 방학이나 서브 인턴쉽 기간을 이용하여 좀 더 보건의료 영역의 시각을 넓혀 줄 수 있는 곳으로 해외 연수를 가도록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려면 관심이 있는 분야나 지역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일정을 짜 보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해외 연수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과정들을 기다리는 중인데,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해외연수에 대한 홍보해 보려고 한다.

학생파트에서 부탁드릴 내용

Q. 학생파트에서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부탁드릴 내용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

이번 학장단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다. 우리 의대 학생 입학 점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학생은 아니며, 완성된 성인은 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의대 입학이라는 혹독한 과정을 뚫고 원하는 성과(의대입학)를 이뤄내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어야 하는 발달과정을 다 거치지 못하여 그 발달 과정을 의대 과정 중에 완수하여야만 균형잡힌 성인, 좋은 의사로 이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의대생을 설명하는 단어는 ‘후기청소년기’라고 할수 있다.

후기청소년기는 심리적인 독립, 그리고 주거를 포함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완수하였을 때까지의 시기라고 한다.

우리 학생은 아직 성인은 아니고, ‘후기청소년기’ 학생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세대가 겪었던 정상적인 발달과정(예를 들어, 연애와 실연, 스포츠 등을 통하여 패배와 분함을 받아들이는 것, 억울한 일을 자기 힘으로 극복/인정하는 것 등)을 거치지 못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모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 교수님들께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진심에 반응한다. MZ 세대니 뭐니 해도 의대생에게 의대 교수는 높은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다.

교수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는 학생의 관점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그런 강력한 힘을 학생들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많이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결국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수많은 환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동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학부모님들께

우선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우리 의대에 들어왔을지를 알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 ‘후기청소년기’ 과정을 거치는 중이며, (‘경제적/심리적) 독립’과정의 마무리이기는 하지만, 의대 6년 동안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고 입학과 동시에 끝나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고등학교 때 미뤄뒀던 발달까지 다 따라잡고 후기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방대한 양의 의학 학문을 배우면서, 완수하여 독립된 성인이 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학생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고 대화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 학생들에게

우리 사랑스러운 학생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는 것을 스스로 믿으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수 천, 수 만의 환자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건강을 찾고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

그 환자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일생에 거쳐 계속 감사함을 전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꼭 인정해야 할 것은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대 과정, 그리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좌절, 몸과 마음의 고로움에 쓰러진 후에 주변의 가르침과 도움에 기대어 일어나는 담금질 과정을 여러 번 겪어야만 수많은 생명을 돌보게 되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예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을 한 명의 대단한 의사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의사라면 알아둬야 할 기본적 지식 ‘혈액종양’

필수적 부분 위주 간소화 추진 등

혈액종양과정은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4주간 진행되며, 기초의학(16.2%), 임상의학(81.9%), 의료인문학(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은 3주로 예정되어 있다.

혈액종양학 과정에서는 혈액질환의 세부 사항들과 종양학의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다. 혈액질환은 크게 백혈병, 다발성골수종과 같은 악성 혈액질환과 빈혈 등의 비악성 혈액질환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총론과 각론으로 학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종양 분야는 주로 고형암의 공통적인 부분을 다른 총론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암종에 특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다른 학과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다.

혈액종양과정이 중요한 이유

혈액질환과 고형암은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특히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여,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종양내과, 혈액내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등 여러 과가 협력하여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와 더불어 암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혈액종양과정 류민희 책임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혈액종양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빈혈 등 비악성 혈액질환도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며, 의사라면 누구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장점

이 과정은 다학제 간 유기적으로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미리 제공된 동영상 학습을 먼저 하고, 이후 토론, 질의 응답, 다학제 접근법, 실습, 기타 각종 interactive course를 통해 혈액 종양 질환의 이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혈액 종양 질환의 진료 수준은 국내 최고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질환을 담당하는 교수진들이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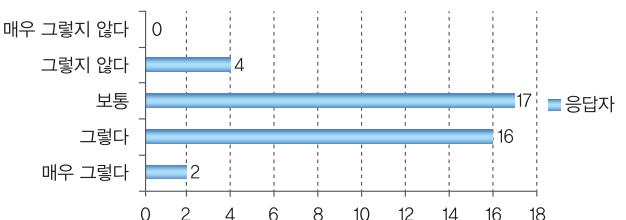
▲전반적인 만족도

이 과정의 전반적인 학습 만족도는 7.10점(10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전체 응답자 39명 중 8점 이상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점이 11명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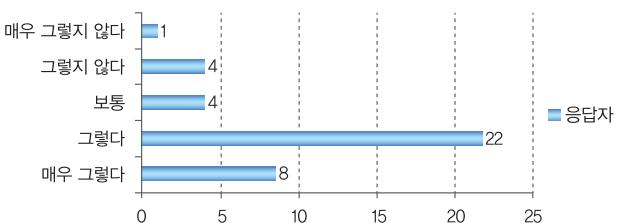
▲소통능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

과제(발표 및 리포트) 작성과정이 소통능력(글쓰기, 말하기) 향상의 기회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3.6%는 보통, 41%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0.2%, 평균은 3.41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었다.



▲강의 간 연계성, 논리성 적절

강의 간 연계성, 논리성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56.4%가 그렇다가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10.3%)보다 월등히 높았고, 평균 3.82점(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학습자료 제공

수업동영상 등 학습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수업 이후에 제공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61.6%)은 해당주나 1주전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수업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어 좋았다”, “어려운 내용이나 기초부터 알려주신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

다”, “미리미리 동영상을 올려준 점이 좋았다”, “불필요한 TBL이 많이 없었다”, “증례 수업이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표적인 어려움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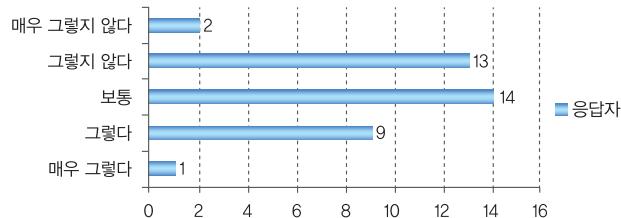
혈액질환과 고형암은 점점 그 발생률과 유병률이 많아지고 있고, 범위도 광범위하여 혈액종양 질환을 망라하다보니 강의와 수업 내용 양이 방대하다. 다루어야 할 내용에 비해 학과 과정 기간이 짧은 편이고, 학생들은 학업량이 많은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류민희 책임교수는 “현재 본 학과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타 학과 과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강의 과정을 학생 눈높이를 고려하여 필수적인 부분 위주로 좀 더 간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시험 문제 수준

실제 시험 문제 수준과 관련하여 보통이 46.2%, 41%는 어려웠다고 답하였고, 평균 2.5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배려

‘기획과 운영이 학습자를 배려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35.9%는 보통, 그렇지 않다는 33.3%를 기록하는 등 평균 2.85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학습자료 분량 외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주당 학습자료의 분량과 관련해서는 61.5%가 힘들었다고 대답하였고, 평균 2.10점(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도 56.4%가 힘들었다. 35.9%는 매우 힘들었다고 답하여 평균 1.72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주차마다 배정된 강의가 너무 많아 버거웠다”, “짧은 과정에 비해 학습량이 너무 많았다”, “강의와 강의자료가 늦게 업로드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업 전 사전 준비

혈액종양학 과정 운영 계획서를 학과 과정 전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운영 계획서에는 과정 정보와 학습성과, 동영상 강의를 포함한 학습 자료 목록, 스토리보드 등 실시간 수업시간표가 포함되어 있다.

류민희 책임교수는 “학생들은 이 일정에 따라 학과 과정을 미리 파악하고 동영상 자료를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여 공부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개별 고형암에 대해서는 타 학과 과정에서도 각론으로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혈액질환은 타 학과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혈액질환에 대한 내용들과 고형암의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는 총론 부분은 모든 고형암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본 과정에서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미니인터뷰] 혈액종양과정 류민희 책임교수



Q. 앞으로 추가 개선해야 할 부분

혈액 종양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그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어 그 치료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학생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전에는 의과대학에서도 주입식 암기 교육이 주였는데, 현재 학과 과정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스스로 의문을 갖고 표현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지식을 체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기본 지식을 익히고, 각종 interactive course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을 부탁드린다.

Q. 기타 당부하고 싶은 부분

혈액 종양 질환은 진료 과정에서도 다학제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교육 과정에서도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의대 교수들이 이 교과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참여 의대 교수들이 좀 더 자주 모여서 교육 과정에 대해 학장단과 더불어 상호 조율을 하고, 무엇보다도 교과 과정은 학생을 최우선하여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증 난치성 질환 전문병원 역할이 주요 목표

세계 최고 수준 중증 난치성 질환 및 태아 치료 성과

'학생 기자가 간다' 이번에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서 주요 현황 및 활동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현황은 물론이고 이 병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직접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취재가 진행되었다.

병의 치료 과정부터 완치 이후의 관리까지, 소아 환아들이 삶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을 아름답게 맞춰갈 수 있도록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Hospital in hospital'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신관에 259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문의 114명, 간호사 399명, 그 외 약제, 영양, 행정, 보건직 39명이 협력하여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서울아산병원 내에 어린이병원이 있는데 별도의 건물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서울아산병원의 일부 공간을 어린이병원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를 병원 내 병원, 즉 'Hospital in hospital'이라고 한다.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별도의 병원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병원 경영에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검사 장비와 시설을 성인 환자들과 공유해서 사용해 공간 및 예산 활용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고태성 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를 기본 이념으로 하되, 중증 난치성 질환, 태아 치료 및 고난 이도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많은 전문인력들이 협력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연구와 전문 의료진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의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중증 난치성 질환 및 태아 치료 성과를 내고 있다."며, "최근



좌: 고태성 병원장, 우: 전해성, 김강현 학생기자

에는 몽골,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환자들도 우리 병원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학교

서울아산병원에는 장기간의 치료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을 위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학교처럼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초·중·고등부 합하여 하루에 10~12명 정도가 수업을 듣는다.

대신 한 명 한 명씩 맞춤형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게 되면서 지방 교육청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을 같이 듣다가 이번 학기는 다시 병원학교 수업을 재개한 상태이다.

학교 전담 교사가 있고,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 올 경우도 있다. 주로 오프라인으로 수업 진행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규모는 작지만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게 되어있다. 이곳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정규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도 된다. 소아청소년학교실 강성한(종양혈액과) 임상조교수는 "치료를 받아야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어도 학년 전체를 유예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원래대로 다시 수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좌: 어린이병원 중등부 교실, 우: 어린이병원 초등부 교실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을 위한 전인적 돌봄 ‘햇살나무’

서울아산병원은 간이식 등 굉장히 큰 수술을 하는 아이들도 많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성질환도 많다 보니, 환아와 가족도 모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또 환자들이 연약한 아이들이다 보니 더욱 더 질병에 대한 치료는 물론 삶의 질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햇살나무)이 운영중이다.

햇살나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한 교수는 “대부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 환자의 완화의료와 달리,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꼭 환자가 임종기에 있을 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어하는 환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지어 진단 시점부터도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담당 간호사들이 환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음악 프로그램이나 재활치료, 요가/운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좌: 햇살나무 사무실 입구, 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 될 신관 14층 공간

음악 치료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환아들이 직접 자기 곡을 작곡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으로 키체인이나 달력을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입원이나 의사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의사 가운데 그림을 그려보는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강성한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화상으로 수업을 준비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많았는데 앞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되면서 더욱 다양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며, “현재 계획으로는 재활 치료사와 작업 치료사를 채용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 후원금을 조금 더 모아서 아이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는 소아정신과 선생님을 뽑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아들이 만든 키체인과 달력

소아청소년암 완치자들을 위한 ‘완치자 클리닉’

항암치료가 암 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완치 이후 잘 지내지만 일부의 경우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완치자 중 일부는 항암치료로 인해 2차 암이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 질환이 빨리 생기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 기능,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선별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완치자들의 정신적인 문제이다. 강성한 교수는 “사실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지가 얼마나 안 됐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소아암에 걸린 환아들이 장기 생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정도가 되어서야 소아암 생존율이 매우 좋아져서 완치자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짧은 시기에 이런 강한 치료를 받게 되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적응을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처럼 인생의 짧고 찬란한 시기를 또래들과 구별하여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처지를 되게 고로워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 기간동안 진로에 대해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나, 이후에 사회에 합류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문제를 잘 다루어 주지 못한 경우 완치되어 퇴원하더라도 집에서 외톨이처럼 지내거나, 40대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정신과에 의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니인터뷰] 강성한(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임상조교수



Q. 병원학교 운영 및 어린이 환자들의 심리적 돌봄의 어려운 점?

사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도 해결되기 힘든 고민들을 환아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치료를 받고도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아이들이 병원에서 완전한 쉼과 편안함을 느끼려면 사실 병원의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필요에 비해 의료진들 숫자나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Q.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한 아이의 인생을 하나씩 맞춰가는 퍼즐로 본다면, 소아과는 아이 삶의 굉장히 큰 한 조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병으로 인해 그 조각이 망가지지 않게 잘 도와줄 수 있다면 아이의 삶의 큰 일부분이 잘 완성될 수 있다.

우리 의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 손을 뻗어줄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취재 후기

김강현, 전해성 학생기자



김강현 학생기자



전해성 학생기자

어린이병원 간호사 및 선배 의사분들의 배려로 어린이 병원 내 다양한 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다.

본문에서 소개한 병원학교, 호스피스 외에 NICU와 PICU 견학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위태로움과 사랑스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공간이었고, 주변 모든 환경이 낯설고 힘들 작은 아기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의료진분들을 통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의 경계에 놓인 아이들이 부모님 곁으로 건강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을 때의 그 기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 감사했다.

또한,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Tetralogy of Fallot'이 무엇인지, 'PAIVS'가 무엇의 약자인지 질문했을 때,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환아의 흉부 엑스선 사진을 보여주고 병명을 맞춰보라고 했을 때, 하나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 부끄러웠다.

처음 임상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했던 내가 배우는 지식의 무게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본과 3학년 임상 실습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님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에서는 울산의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의대 발전방향, 잘하는 점, 개선할 점 등 울산의대와 관련된 내용 중 소식지에 게재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된 내용은 소식지에 게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이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타문의 및 투고 :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소식지

(uucmnews@daum.net, 김영신 객원기자 : 010-3320-2624)

건강봄철 알레르기 비염의 관리요령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질환’…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필수



내과학교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유영상(강릉아산병원) 교수

봄철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한다. 매년 환절기만 되면 나타나는 비염 증상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치료가 되지 않고, 증상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비염’ 치료 안 되고 증상 반복되는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필요한 만성질환

알레르기 비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과 특정 계절(특히 환절기)에 특정 꽃가루에 의해 유발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두 가지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코막힘, 맑은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등)이 나타난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봄철 꽃가루에 의해 매년 비염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치료가 잘 안되어 힘들어한다.

▲치료와 예방 소홀이 주요 원인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이나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만 경구약을 일시적으로 먹고 계절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다시 치료와 예방에 소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매년 환절기 때 환자들의 삶의 질은 항상 나쁘고,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천식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예방적 약물 치료 권고

계절성이 분명한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면 꽃가

루 유행시기 최소 2주 전부터 치료 약제를 투약하면 꽃가루 농도가 최고에 달하는 시기(유행 후 3~4주)의 비염 증상을 경감 시킬 수 있어 예방적 약물 치료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통년성인 경우는 더욱 그렇지만 계절성이라 하더라도 통년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런 경우는 환절기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염 치료 핵심…코스프레이 지속적 사용

비염의 치료 방법에는 항원에 대한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치료 등이 있다. 이 중 약물 요법에는 경구약제(항히스타민제 등)와 코스프레이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코스프레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코스프레이는 처방이 필요한 비강 스테로이드제제를 말하는 것으로 약국에서 직접 구입 가능한 비충혈제거제가 아니다.

비충혈제제(오트리빈)는 코막힘 증상에 매우 빠른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의인성 비염의 부작용이 있어 5일 초과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코스프레이 복약 중단 대표적 이유

코스프레이(비강 스테로이드)가 매우 효과적인 비염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약물 순응도가 좋지 않아 몇 번 사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잘못된 소문

첫째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제여서 가능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소문 때문이다.

비강 스테로이드는 전신으로 퍼지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비강에만 국한되어 작용하는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오래 사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최고의 비염 치료제이다.

▲2주 이상 사용 필수

둘째는 너무 단기로 사용한 후에 효과를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6페이지에 계속

우리 의대 입학·졸업식 개최 …‘교양있는 의사, 도전하는 의사’ 강조

우리 의대가 지난 2월 졸업과 함께 신입생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동안 COVID-19로 인하여 규제가 많았던 상황을 벗어나 대면을 통하여 졸업, 입학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 높은 관심을 모았다.

제30회 의학과 학위수여식 및 히포크라테스선서식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의과대학 1층 강당에서 학위수여식 및 제30회 히포크라테스선서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흥창기 명예교수(前 5, 6대 학장), 이승규 석좌교수, 송재관 의무부총장, 김승후 학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김정한 교수(前 교수협의회장),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 등을 포함하여 의대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1부 의대 학위수여식에선 국민의례, 학사보고에 이어 학위 수여로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한정애 학생 등 15명의 졸업생에 대한 다양한 수상이 진행되었다.

식사로 학장, 서울아산병원장 등의 격려사, 졸업생 고별사 등도 이어졌다.

이번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아쉬

움을 보였고, 학부모, 교수, 직원 등은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수상자	
최우수상	한정애
우수상	김병훈
대한의사협회장상	최재호
서울아산병원장상	김정목
KAMCi사장상	정윤서
송파구의사회장상	전재현
동창회장상	정용찬
교수협의회장상	정연성
공로상	임동훈
모범상	조영훈
논문게재장려상	김상영, 임동훈, 한정애
홍·김내과상	문보현
이승규외과상	임한슬



의대 신입생 입학…학부모 간담회 개최

우리 의대 신입생들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 의대 강당에서 의예과 입학식을 통해 의사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 1부는 신입생 입장, 개회식, 국민의례, 학장식사, 보직교수 소개, 장학증서 전달 및 교수협의회 장학금 전달, 명예서약, 학교소개,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학부모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의대 생활에 대한 기대감

과 함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한 보직 교수들이 응답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승후 학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경쟁력있는 의사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겸손하고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양있는 의사, 받은 혜택에 감사할 줄 아는 의사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4페이지에 계속

코스프레이는 실제 최소 2주는 사용을 해야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제제이다.

성격이 급한 한국사람들의 특성으로 인해 1~2일 사용 후 효과가 느리면 바로 약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2주 이상 지속적인 사용을 한다면 효과는 확실히 볼 수 있어 꾸준한 사용이 중요하다.

▲잘못된 사용 방법

셋째는 잘못된 사용 방법 때문이다.

진료시 시간 부족으로 환자들이 코스프레이 사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잘못된 사용법으로 효과를 잘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겪어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 교육실에서 교육을 못 받았다면 검증된 동영상을 추천을 받아서라도 정확한 사용법을 교육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근치적 ‘알레르기 면역치료’…성공률 80~90%

정확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알레르기 원인 항원(알레르겐)을 확인했다면 전문적인 알레르기 면역치료를 할 수 있다.

면역치료는 원인 알레르겐(예:꽃가루, 집먼지진드기, 고양이털 등)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투여해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치료로 피하주사와 설하투여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3~5년 정도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시작하기 전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성공률은 80~90%로 높게 평가되며, 새로운 항원에 감작되는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확인된 항원에 대한 회피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거나, △기존 약물 치료로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약물 치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일 경우 면역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의대 교수 17명 인생 2막 시작...정년식 개최

우리 의대가 지난 2월 6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2022학년 2학기 교원 정년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년식에는 김용길 부학장의 사회로 비뇨의학교실 안한종, 흉부외과학교실 이재원, 안과학교실 차홍원, 핵의학교실 문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빙성일, 악리학교실 이해경, 이비인후과 학교실 남순열,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기수, 가정의학교실 김영식, 외과학교실 권태원, 내과학교실(호흡기) 이상도, 산부인과 학교실 이필량, 안과학교실 윤영희, 생리학교실 장연진, 진단검사의학교실 민원기, 내과학교실(신장) 박수길, 정신건강의학교실 김창윤 교수 등 17명의 정년을 맞이하는 분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축하, 감사, 견승을 함께 전하였다.

이어 김승후 학장의 식사, 송재관 의무부총장 및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총장 공로패 증정, 학장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서울아산병원장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교수협의회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 등도 이어졌다.

우선 김승후 학장은 우리 의대 졸업생 학장으로 이번에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과 개교 초기 스승과 제자로 맺은 인연의 각별함을 강조하였다.

김승후 학장은 “지금의 대학과 병원이 있기까지 교수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에 대해 대학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쾌척 감사합니다. 글로벌 의대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의대 동문 LCME 발전기금 모금 현황

우리 의과대학은 교육공간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발전기금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사업은 현재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발전기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매년 학생들의 장학금과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기금을 위해 급여에서 공제하여 교수협의회 명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LCME 발전기금 모금을 위하여 2022학년도부터는 동문 LCME 발전기금 모금 활동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1년 동안 50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여 약 6 억 4,000만원의 후원금(약정액 기준)이 모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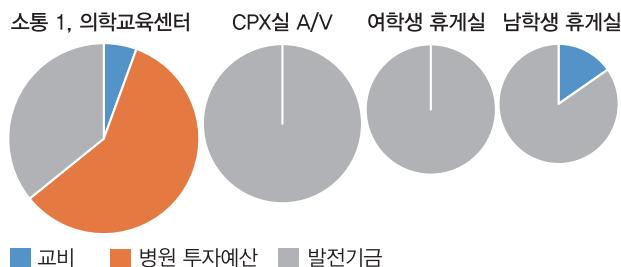
이 외에도 직접 발전기금 후원 약정서를 제출, 참여하는 교수님들도 많았고, 학부모님, 기타 일반 후원자 분들도 모금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의대는 지난 2021년 발전기금으로 약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의학교육센터 및 소통 1강의실, 남학생 및 여학생 휴게실 리모델링, CPX실 영상 및 음향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는 (구)의학과 1학년 강의실 리모델링(음향시스템, 책걸상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하여 글로벌 의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대가 되겠습니다.

2021 교육공간 리모델링 비용



2023 (구)의학과 1학년 강의실 리모델링 계획

(구)의학과 1학년 강의실



구분	교비	병원 투자예산	발전기금	합계
소통 1, 의학교육센터	34,530,000	363,680,000	222,244,000	620,454,000
CPX실 A/V	0	0	125,400,000	125,400,000
여학생 휴게실	0	0	20,400,000	20,400,000
남학생 휴게실	3,000,000	0	16,600,000	19,600,000
합계	37,530,000	363,680,000	384,644,000	785,854,000

구분	교비	병원 투자예산	발전기금	합계
의학과 1학년 강의실	32,850,000	269,000,000	158,650,000	460,500,000

※ 23년 2월 착공, 3월 준공 계획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약정)서」 작성 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무통장 입금: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자동 이체: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과대학 장학금: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의과대학 위임: 의과대학 관련 기타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의과대학 연구목적기금: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별첨2 「아산사회복지대단 서울아산병원 후원 (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무통장 입금: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자동 이체: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후원 용도: 병원발전기금 선택 (v)세부 내용: 지정 선택 (v) 후 아래 세부내용을 선택하여 기입 울산의대 발전기금 / 울산의대 교육연구기금 (LCME)

기부 및 후원 안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 및 후원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의대로서 자리매김 해가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후원자 분들의 기부에 가치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약정서 및 기부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의과대학 교무기획팀 이정현 02-3010-4214, jaylee0131@ulsan.ac.kr



2022년도 LCME 발전기금 신규후원자 명단

강동화(교수)

강지원(동문 17기)

고대욱(동문 17기)

고원욱(교수, 동문 10기)

곽범석(동문 1기)

박상형(교수, 동문 10기)
LCME 성공을 기원합니다.

울산의대 9회 졸업생 일동

유철인(교수)

의과대학 여교수회

이상아(동문 25기)

이상일(동문 10기)

박성우(동문 18기)

뛰어난 커리큘럼, 뛰어난 학생,
뛰어난 동문.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자랑스럽습니다.

이주용(교수)

이지호(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이현(교수)

임병각(동문 1기)

정석훈(교수, 동문 6기)

서종현(교수)

서치우(동문 27기)

손승용(동문 11기)

송호영(동문 6기)

신창임(동문 10기)

구승우(교수, 동문 27기)

길선령(동문 10기)

김기수(내분비내과 명예교수)

김도연(동문 21기)

김미현(교수, 동문 10기)

홍성우(동문 12기)

울산의대여 영원하라^^

육재진(동문 3기)

교육과정과 평가의 변화로 의학
교육의 기준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두영(동문 27기)

최원영(동문 27기)

이석준(동문 27기)

이선희(동문 12기)

이연주(동문 24기)

이종복(동문 1기)

이충우(교수, 동문 7기)

이미숙(동문 1기)
"울산의대의 새로운 도약과 융합"

류주석(동문 7기)
박경민(교수, 동문 9기)
박상현(동문 22기)
박영실(동문 27기)
방성조(교수, 동문 1기)

심창선(교수, 동문 4기)
아산사회복지재단
안종준(교수, 동문 1기)
양동훈(교수, 동문 6기)
울산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조재형(동문 11기)
"울산의대의 무궁한 바짓을 기원합니다"

김애란(명예교수)
김용섭(교수)
김혜영(동문 14기)
김호범(동문 27기)
두진경(동문 5기)

조한규(동문 17기)
"작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해웅(동문 8기)
"LCME 동문 발전기금 후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업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요람이 되었던 나의 모교에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부 의사표시하고 바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심시일반 도울 수 있는 행동하는 우리 동문 여러분이 함께 되어 주심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교수)
김소연(교수, 동문 67기)
김송철(교수)
김수정(동문 11기)
김승후(교수, 동문 27기)

정재윤(동문 19기)
조경욱(교수)
주철현(교수, 동문 27기)
차충환(교수, 동문 4기)
채은진(교수)

양유진(동문 19기)
저를 성장시킨 학교에 후원할 수 있게 되서 기쁩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의과대학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와 보건 의료 시스템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 (진료) 활동을 선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1) 교육 –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
 - 2) 연구 – 의학을 발전시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 3) 봉사 – ① 참된 진료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② 지역, 국가, 국제적 건강 및 보건의료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교육목표: 소통능력, 윤리의식, 창의력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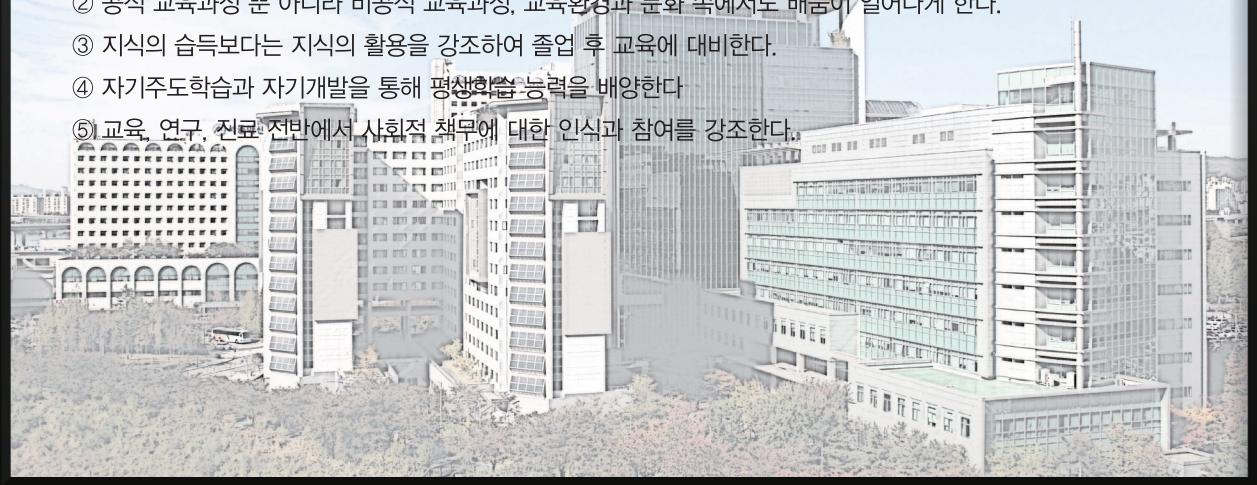
- 졸업성과:**
- ① 전문직업성
 - ② 교육과 연구
 - ③ 소통과 협력
 - ④ 자기 개발
 - ⑤ 환자 진료 *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울산의대의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졸업생은 기본 수준의 진료 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을 위한 역량, 졸업 후 교육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략:**

- ①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 ② 공식 교육과정 뿐 아니라 비공식 교육과정, 교육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
- ③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활용을 강조하여 졸업 후 교육에 대비한다.
- ④ 자기주도학습과 자기개발을 통해 평생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 ⑤ 교육, 연구, 진료 전반에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강조한다.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6년간의 기본의학교육 (Basic Medical Education)을 마친 후,

- ① 다양한 의료의 영역에 대한 경험과 시견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전문영역에 대한 졸업 후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졸업 후 단계에 따라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적 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 연구, 진료방침:

- 1) 교육 – ① 학생 때부터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이슈에 노출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 가치를 인지하게 한다.
② 사회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교육한다.
- 2) 연구 – ①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②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을 배양한다.
- 3) 진료 – 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진료 경험을 제공한다.
② 지역, 국가 건강 및 보건의료 이슈에 참여하고 국제 보건의료 이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각 임상 분과, 의료관리, 의학연구, 의학교육, 인문사회 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래의 조건을 갖춘다.

- ① 임상 분과, 의료관리, 의학연구, 의학교육, 인문사회 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 ② 다양한 경험, 자기주도학습능력, 평생개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책임감, 타분야에 대한 이해와 존중, 윤리적 감수성, 이타심, 공감 등을 함양한다.





미션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교육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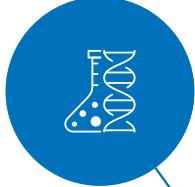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 육성

교육
목표

소통 · 윤리 · 창의

소통과 협력

교육과 연구



자기개발



전문 직업성



진료



[졸업 성과]